

- 주요 뉴스: 미국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둔화 3월 FOMC 0.25%p 인상 예상 증가
 - 미국 지역은행 주가 큰 폭 반등. 금융시스템 우려 완화 등에 기인
 - Credit Suisse, 예금인출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소 둔화. 전반적인 상황은 개선
 - OPEC,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유지. 중국은 증가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7%],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1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통화긴축 완화 전망, 은행권 우려 완화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항공 및 부동산 관련주 등의 강세로 1.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3월 금리인상 중단 기대 감소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강보합, 0.8%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6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02.1원, -9.0원) 0.5% 하락, 한국 CDS 하락

		3/14일	3/13일	전일대비			3/14일	3/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20.6	3,855.8	1.68%	국채 금리 10y	미국	3.69%	3.57%	12bp
	유럽	449.56	442.80	1.53%		독일	2.42%	2.26%	16bp
	중국	3,245.3	3,268.7	-0.72%		영국	3.49%	3.37%	12bp
	일본	27,222	27,833	-2.19%	CDS 5y	한국	43bp	44bp	-1bp
	한국	2,349.0	2,410.6	-2.56%		중국	77bp	78bp	-1bp
	달러지수	103.67	103.60	0.07%	위험 지표	EMBI+	-	415	-
환율	유로화	1.0733	1.0731	0.02%		VIX	23.73	26.52	-10.52%
	엔화	134.22	133.21	-0.75%		WTI유	71.33	74.80	-4.64%
	위안화	6.8735	6.8483	-0.37%	원자재	구리	401.6	407.0	-1.31%
	원화	1,311.1	1,301.8	-0.71%		금	1,904.0	1,913.7	-0.5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둔화. 3월 FOMC 0.25%p 인상 전망 증가

- 2월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상승률은 6.0%를 나타내 전월(6.4%) 대비 하락했고,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저치. 월간 상승률 역시 전월비 하락(0.5%→0.4%). 근원 CPI 경우 연간 상승률은 소폭 하락(5.6%→5.5%)했으나 월간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높은 수준(0.4%→0.5%)
- 세부항목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0.6%)한 반면, 식품 가격은 상승(0.4%)했으나 전월(0.5%)에 비해서는 오름세 둔화. 특히 CPI에서 비중이 1/3을 상회하는 주거비가 전월비 0.8% 올라 강한 상승세 지속.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등을 고려 시 주거비도 향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번 결과는 대부분 시장 예상에 부합. 또한 근원 CPI 월간 상승률이 전월 대비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 그러나 최근 SVB 사태 등을 고려한다면 3월 FOMC에서 위원들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춰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Capital Economics의 Andrew Hunter)
- 인플레이션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연준은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연준은 3월 FOMC에서 0.25%p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최종금리는 5.00%~5.25%로 추정(Bloomberg Economics)
- CME의 FedWatch 역시 연방기금금리(현재 4.50%~4.75%)가 3월과 5월에 각각 0.25%p 인상될 것으로 전망. 그 이후 6월에 첫 금리인하(-0.25%p)가 이루어지고, 9월에 다시 한 번 인하(-0.25%p)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지역은행 주가 큰 폭 반등. 금융시스템 우려 완화 등에 기인

- First Republic Bank(27.0%), PacWest Bancorp(33.9%), Western Alliance Bancorp(14.4%) 등 지역은행의 주가가 대부분 급등. 이는 SVB 파산 이후 증폭되었던 금융시스템 전체로의 위험 확산 우려가 완화되었기 때문
- 다만 Moody's는 미국 은행시스템과 6개 지역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은행시스템과 지역은행들은 영업여건 악화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

■ EU 재무장관회의, 대략적인 재정준칙 변경 합의에 근접. 세부내용은 추가 논의 필요

-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작년 11월에 제시된 기본 원칙들을 대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 11월에 만들어진 초안에서 회원국들은 예산적자를 GDP의 3%, 부채는 GDP의 60%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합의

■ Credit Suisse, 예금인출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소 둔화. 전반적인 상황은 개선

- 율리히 코에너 CEO는 예금인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력 축소 등의 구조개혁 노력으로 고객신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 특히 최근 SVB 파산 이후 예금이 증가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첨언

■ 영국, 최근 3개월 임금상승률은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확대

- '22년 11월~'23년 1월 임금상승률은 5.7%로 전기(6.0%) 대비 낮은 수준.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및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폭 축소 등의 기대가 증가

■ 중국 정부, 3/15일부터 외국인 관광비자 발급을 전면 재개

- 외국인에 대한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 이번 조치는 대외 방역으로 인한 장벽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로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OPEC,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유지. 중국은 증가 예상

- 월간 보고서를 통해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일일 230만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기존의 입장을 유지. 중국의 수요는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서방국가들의 수요는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

■ 일본 금융당국, SVB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은 제한적

- 고토 경제상은 SVB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큰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 순이치 재무상 역시 일본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소매판매 및 생산자물가, 중국 2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금리인상 중단은 금융시장 안정과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전망 - 블룸버그

(If the Fed Fails to Raise Rates, It Will Be a Sign of Panic)

-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및 통화긴축 중단 가능성을 제기. 그러나 2월 소비자물가 결과는 고물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비주택 근원서비스물가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 지속
-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은행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실질적 금융긴축 및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 등을 전망. 그러나 연준은 고물가 관련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 아울러 금리인상을 중단할 경우 연준의 정책 신뢰가 약화되고 은행권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소지

■ 미국 SVB 사태, ECB의 금리경로 변경을 유도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US banking crisis could sway ECB from committing to future interest rate rises)

- SVB 파산에 따른 금융불안 등으로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에 관심. ECB의 경우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0.50%p 인상이 확실시. 다만 그 이후 5월 통화정책회의까지는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금리인상 폭 언급을 자제하면서 SVB 사태의 여파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은 SVB 사태가 유럽 은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유럽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변화는 금융여건 긴축을 유발하고 ECB의 금리인상 압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SVB 사태 대응 조치, 많은 모순이 존재 - WSI

(Biden's Bank Bailout Whoppers)

- 바이든 행정부의 고객예금 전액 보증과 유동성 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는 비합리적 내용이 포함. 특히 당국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소액 예금자에게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 스타트업과 벤처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보전 받는 특혜가 제공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금번 사태의 원인이 트럼프 시대의 도드-프랭크법 개정이라고 주장. 하지만 해당 법안의 개정 이후에도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 관련 감독과 스트레스테스트가 계속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결국 현 규제당국이 은행권의 금리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 미국 SVB 사태, 금리변동 위험을 무시했던 은행에 경종 - Financial Times

(Silicon Valley Bank crash is a red flag on rate risk)

- 은행 경영에 있어 유동성 위험, 금리변동 위험, 신용위험 관리는 위험관리의 기본. 그러나 SVB의 경우 적절한 헤지 없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 이는 SVB의 전세계적인 금리인상을 대비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또한 당국의 감독 소홀 역시 주요 원인으로 거론
- 한편 ①예금 감소, ②보유채권 가격 하락, ③불충분한 금리변동 위험 헤지 등은 은행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 유럽계 은행들은 '09년부터 국채 가치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본 은행은 해외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
- 반면 미국계 은행은 연준의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등으로 상대적으로 예금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미국 당국, 은행 안전성 보장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 - Financial Times

(Banks are designed to fail — and they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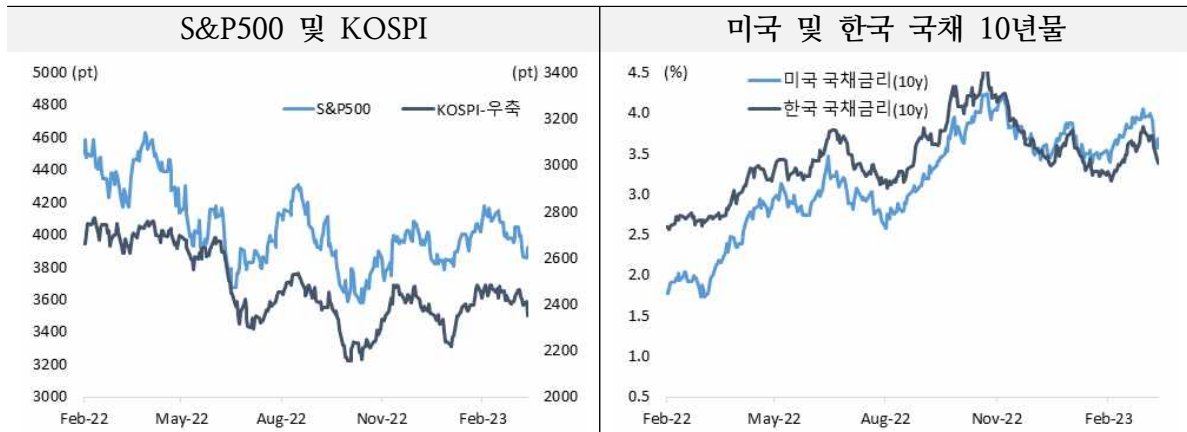
■ 미국 지역은행, 금리 변동성 안정되기까지 예금이탈 지속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Will another bank fall?)

■ 일본경제, 중소기업의 저조한 임금인상 참여로 소비 및 성장부진 계속될 소지 - WSJ

(Japan Has a Low Risk of a Wage-Price Spiral and That's a Mixed Blessing)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